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폴란드 바르샤바, 관공서 내 십자가 전시 금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시장이 시청과 공공건물에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 전시를 금지했다고 브뤼셀 시그널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규정에 따라 폴란드 바르샤바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공식 행사는 세속적인 성격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르샤바는 폴란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십자가를 관공서에서 볼 수 없는 첫 번째 도시가 됐다.

이번 정책은 대체로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폴란드가 소련의 일부였을 때도 정부 건물에서 종교적 상징물 전시는 금지됐기 때문이다. 십자가 설치 금지는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진 이후, 폴란드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공공건물에 다시 십자가가 등장한 지 35년 만이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후 폴란드 정치인 마리우스 블라슈차크는 소셜 미디어에 공산 정권에 의해 살해된 저명한 신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 체제와 정권은 단지 육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영혼에 도달하고 내면의 자유와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썼다.

폴란드의 의회 의장인 시몬 홀로니아는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사당 벽에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관공서에 십자가를 걸지 않겠지만, 오늘날 폴란드에서 십자가를 벽에서 떼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전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공공건물에 십자가를 전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는 한 학부모가 공립학교에서 십자가를 철거해 달라고 이탈리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라우치 대 이탈리아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공립학교의 십자가가 유럽 연합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벽에 걸린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상징이며, 교훈적인 연설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학생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출처: 복음 기도신문 종합).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린도전서 1:23-24)

하나님, 공공기관에 설치된 십자가와 종교적 상징물을 없애라며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일을 시도하는 폴란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공산 치하 아래 억압당하며 고통했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폴란드 국민들이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긍휼과 지혜를 구하며 싸우게 하소서. 이때 교회가 복음을 더욱 선포하여 십자가가 거리끼고 불편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의 사랑의 표징으로 각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일본, 중년에도 부모 의존 증가

일본에서 중년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애저씨'(코도오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0일 전했다. 애저씨는 '애'와 '아저씨'를 합성한 신조어로 '중년 어린이'를 뜻한다. 일본 가나와가현에 사는 45세의 A 씨는 부모 집에 살며 아버지에게 매달 3만 엔(약 26만 원)의 용돈을 받고, 게임 제작으로 얻는 2만 엔(약 18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한다. A 씨는 고령의 아버지가 돌아간 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아직 독립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애저씨' 현상은 일본의 '8050' 사회문제까지 이어져 80대 노부모가 50대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8050'이 '9060'까지 연장돼 자식은 평생 '코도오지'로 부모는 평생 자식 돌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잠언 6:9,20-21)

하나님, 스스로 자립할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부모를 섬겨야 할 중년이 고령 아버지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실상이 사회의 위기감이 될 정도로 심각해진 일본을 돌봐주십시오. 각자 처한 상황들을 변명하기보다 부지런히 몸을 일으켜 허락된 시간을 충성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잠자는 이 땅의 영혼들을 진리로 깨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법을 지키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일본교회와 선교단체가 복음과 기도로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써 오래전부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보게 하소서.

▲ 한국, SNS 통해 사머니즘 유행

한국에서 SNS를 통해 사머니즘(무속신앙)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젊은 무당들이 SNS를 통해 고대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며 한국 인구 5,1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종교를 믿지 않지만, 사머니즘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아기 선녀'로 알려진 무당 이 모(29) 씨를 소개하며 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그녀는 현대적 방법으로 SNS를 통해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2019년 그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 한국의 많은 무당이 영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무당'과 '운세' 등을 검색하는 횟수가 5년 동안 두 배로 늘었다. 통신은 한국의 젊은 층에 사머니즘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취업, 높은 집값,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불안'을 꼽았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31)

하나님, 현대인의 압박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위안과 돌파구를 주님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여 해결하려는 이 땅의 죄악 됨을 회개합니다. 재미와 트렌드라는 세상 풍조를 앞세워 영혼을 더럽히는 일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과 바뀌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인생의 기로 앞에 선 이들에게 진리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이 일에 자복하며 더욱 이때 깨어 주의 말씀을 사수하고 가감 없이 전하여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주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유럽 부흥의 열기...수만 수천 명 예수께 나아와**



유럽에서 동성애, 낙태, 기독교 대상 증오범죄 등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 수만 수천여 명이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부흥의 불을 지피고 있다.

CBN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예수를 위한 행진’에 2만 5,000여 명이 참여해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리 거리를 가득 채웠다. 에펠탑 근처에서 메시지를 전한 장 룩 트라첼(Jean Luc Trachsel) 목사는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한 가지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첼 목사는 “하나님께서 프랑스에서 이 일을 하셨다면 유럽 전역과 전 세계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다. 지금은 추수의 시기이며 부흥이 시작됐다. 혼돈, 전쟁, 반대,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어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도 6만 3,000명의 기독교인이 왈라비 홀랜드에서 열린 제54회 오프베킹 성령강림절 콘퍼런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다. 이번 성령강림절인 5월 19일 열린 콘퍼런스에는 70만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오프베킹의 루벤 플라흐 총감독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에게 가까이하신다고 말씀한다”며 “가까이 오라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익숙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말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결단하며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 헝가리 미쉬콜츠의 DVTK 스타디움에서 ‘오늘이 그날(This is the Day)’ 예배 집회에 1만 3,000여 명이 참석해 1,300명이 헌신을 결단했다.

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사도교회 주최 2024 사도 콘퍼런스에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의 집회에 1만 1,000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CBN뉴스는 로마 가톨릭의 본산에서 이런 대규모 개신교 모임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이사야 55:6,12)

하나님, 유럽 곳곳에 복음을 반역하며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한편에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헌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죄악으로 흑암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럽의 성도들이 이때가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할 때임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부르짖게 하소서. 이 은혜가 계속 이어져 유럽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인도 목사, 거짓 증인의 고발로 체포...언론 갱단으로 묘사, 가짜뉴스 퍼뜨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 팔리어에서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는 목사가 거짓 개종 혐의로 체포됐다고 최근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패스로즈 목사(55)는 지난 2월 3일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50일간 열린 도서 박람회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귀가하던 중 온라인 모임에 참석했던 한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잘룬 지역의 쿨다푸라 마을에 들렀다. 그와 동료 기독교인들이 차를 마시고 있는 중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인 RSS와 VHP 힌두교도들이 패스로즈 목사가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방문했다는 거짓 증인의 고발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들 일행은 차량과 성경, 서적을 압수당하고 분리돼 연행됐다. 당시 현지 언론은 이들을 개종 사기단으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모두 갱단원으로 묘사하며 보도했다. 패스로즈 목사는 이후 법원에 보석보증금을 내고 3월 1일에 석방된 뒤, 압류됐던 휴대폰, 성경, 서적, 현금, 차량을 받아내는데 여러 차례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차량은 지난 5월 30일 돌려받았으나, 여러 부위가 파손돼 있었다. 패스로즈 목사는 모닝스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를 심문하면서 뺨을 때렸다”며 “그들은 나를 ‘개종 폭도’의 리더라고 부르며 친구보다 더 많이 때렸다”고 전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시편 120:1-2)

하나님,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폭도가 계속되고 있는 인도에 또다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거짓 증거로 기독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을 고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마저 속이는 혀가 되어 버린 이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힌두교도들과 경찰의 양심을 찌르사 황포를 멈추고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박해당하는 인도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과 안식이 진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 미국 법무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성 의료화를 비밀리에 시행하는 텍사스 병원에 대해 내부 고발한 외과의사를 기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신체 절단 수술의 증거를 언론인 크리스토퍼 루포에게 유출한 휴스턴의 텍사스 아동병원 외과의사 에이단 하임 박사는 이번 주 초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텍사스 아동병원은 2022년 3월 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러한 시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하임은 병원이 비밀리에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유출했다. 하임은 지난 1월 내부 고발자로 나서기 전에도 연방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루포 기사가 보도된 직후 수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스바냐 3:5)

하나님, 미성년자에 대해 성전환 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비밀리에 이 일을 행한 병원과 이 일을 밝힌 자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한 법무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모르고 불의한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두려우신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깨닫게 하사 악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중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하임 박사를 지켜주시고 점점 정의가 상실되는 미국에 진리를 수호하는 빛과 같은 주의 군사를 더욱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국적 ‘바다 유랑민’ 거처 무더기 철거 논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바닷가에서 수 세기 동안 국적 없이 살아온 ‘바다 유랑민’들의 거처를 당국이 강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 당국은 지난 4-6일 사바주 켐포르나 지역 해안에 거주하는 유랑민들의 무허가 건축물 138곳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사는 수상 가옥과 바닷가 오두막을 부수고 불태웠으며, 쫓겨난 이들은 굶주린 채 해변에서 노숙하거나 부서진 자신들 집의 잔해에서 지내고 있다고 시민단체 ‘보르네오 콤라드’는 전했다.

‘바자우 라우트’로 알려진 이들 집단은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 수 세기 동안 살아왔다. 하지만 출생 때부터 국적 기록이 없어 당국은 이들을 이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곧 무너질 듯한 수상 가옥이나 오두막, 보트를 집으로 삼아 바닷가를 떠돌면서 살고 있어 ‘바다의 집시’로도 불린다.

사바주 당국은 이들의 무허가 어업·농업 활동, 건축물 조성 등 불법 행위에 맞서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 안보 관련 요인을 고려해서 이번 작전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바자우 라우트의 거주 지역은 필리핀 남부와 가깝게는 수십km 떨어져 있어 보트 등으로 왕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철거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이들이 지낼 곳도 찾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단체는 “이번 강제 철거로 말레이시아에서 소수민족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바주가 이들의 무국적 문제를 시정해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각종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립보서 3:20-21)

하나님, 수 세기 동안 국적도 없이 바다 유랑민으로 살던 바자우족의 삶의 터전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강제 철거하여 굶주리거나 힘겹게 사는 이들을 주께서 돌봐주시시오. 정부가 이 일에 외면치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평생 바다를 떠나본 적 없는 이들에게 바다를 조성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구주를 만날 길을 열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끝내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펄펄 끓는 중국·일부선 지표온도 70도 ↑

중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2일(이하 현지시간) 일부 지역 지표 온도는 70도를 넘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신 경보 등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기상국은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전날 오후 허베이성 중남부와 산둥성, 허난성, 산시성 남부, 안후이성 북부 등지 지표 기온이 60도를 웃돌았고 일부는 70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표 온도 70도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수준이다. 12일 오후 2시 기준 허난성 지위안과 위안이 나란히 41.7도를 기록했고 허베이성 한단, 허 난성 멩저우 및 뤼닝(이상 41.6도) 등 많은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산둥과 허난성 등 동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까지 위협받고 있다. 산둥성 이명(沂蒙)산 지역에서는 지난 11일 마을 주민들이 '풀모자'를 머리에 쓴 채 단체로 기 우제를 지냈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한 주민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물 부족으로 죽고 우물은 말라버렸으며, 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고 하소연했다. 기상 전문가는 평파이뉴스를 통해 "전 지구적 온난화 속에 대기순환 이상 현 상이 고온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스가랴 10:1-2)

하나님, 이상 기온 현상으로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까지 위협받고 있는 중국에 소낙비를 내리실 수 있는 주께 간구합니다. 풀모자를 쓰고 기우제를 지내야 할 만큼 절박한 이 땅에 구원의 근거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 주셔서 이들이 허탄한 신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또한 기독교를 공산화하려 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교회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통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 되게 하소서.

▲ 미국 민주당, 청년층 투표 참여 위해 '사후 피임약' 제공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관심을 잃은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사후 피임 약까지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전했다. 민주당 후원 그룹들은 펜실베 이니아와 애리조나 등 경합 주에서 집세 경품, 공짜 맥주, 댄스파티, 사후 피임약 제공 등을 통해 청년 유권자들을 투표장 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는 지난 8일 '낙태를 위한 투표' 그룹이 버스로 도심 곳곳을 돌면서 사후 피임 약을 나눠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를 벌였다. 도널드 그린 컬럼비아대 교수는 1880년대 개혁 이전에는 투표를 독려 하는 악대 행진, 공연, 공짜 위스키 제공 등을 언급하며 이런 행위가 19세기 선거 문화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호세아 10:4,12)

하나님, 국가의 위정자를 뽑는 중대사를 신중함으로 결정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경품과 맥주, 사후 피임약 등으로 유권자를 미혹하며 정욕으로 어지럽히는 퇴색된 선거문화를 꾸짖어 주십시오.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버리 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점점 진리를 상실하여 어두움과 혼돈이 드리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묵은 땅과 같은 이들의 심령을 기경하사 죄인 된 우리를 인애와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은혜 입은 땅 되게 하소서.